

남해안 경제권 어떻게 구축되나

‘선벨트’ 연계 동아시아 지중해 만든다

여수·순천 등 선벨트 중심지 경제구역 지정

인프라 재원 조달·타 시도 반발이 걸림돌

목포~여수~통영~부산을 잇는 남해안은 한국 경제에서 지배적 성장 거점인 서울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낙후지역이다. 하지만 항만, 조선, 철강, 기계,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입지한데다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 2천400개의 섬, 온화한 기후, 장보고·이순신 유적과 같은 수많은 역사·문화유산 등을 두루 갖췄다.

정부는 이런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자양분으로 ▲선벨트 구축 ▲관광 클러스터 개발 ▲여수 엑스포 개최라는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수도권에 맞먹는 초광역 경제권으로 키우기로 했다.

◇선벨트 성공 가능성은=남해안 시대를 여는 한반도 선벨트 구상은 지난해 12월 이명박 후보의 대선 공약에서 출발한다.

이 구상은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5+2 광역경제권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잠시 묻힌 듯하다가, 최근 광중권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광역경제권 개발을 대체할 초대형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대구경북권, 충청권, 전북 등에서 이 구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대 남해안이라는 국토 양극 발전구상에 따른 소외를 염려한 반발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오는 6월 ‘국가균형발전위’를 통해 선벨트 구상을 구체화,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남해안이라는 공동자원을 매개로 ▲‘영호남 화합과 상생의 장’(남중권) ▲‘동북아 해양문화관광거점’(목포권) ▲‘유라시아 관문도시’(부산권)를 만들면 각각 고립돼 있던 전라도와 경상도가 연합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실용적인 광역경제권으로 키울 수 있다는 계산이 섰다. 특히 여수·순천·광양·하동·남해·사천 등 영호남 6개 시·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남중권은 제주에 준하는 규제완화와 금융·세계 혜택이 주어질 첨단 산업과 관광·의료·교육 산업이 육성되는 선벨트의 중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걸림돌은 철도·도로 등 막대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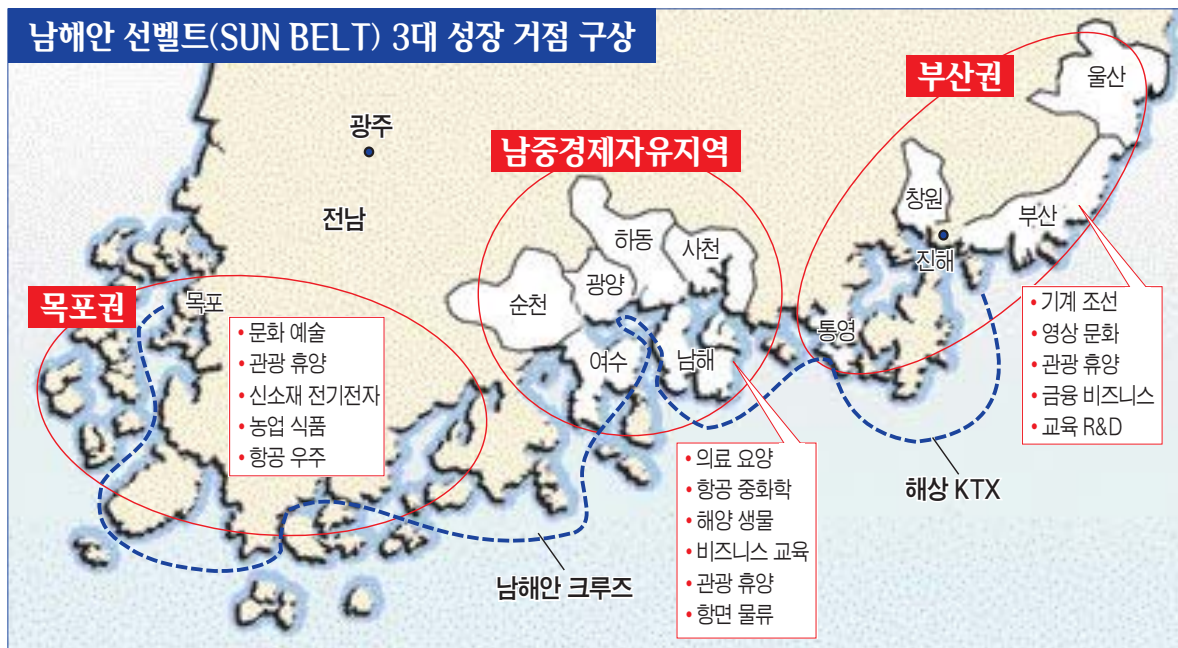


Table with 3 columns: 남해안 선벨트 지역 연결 인프라 추진 구상, 수상 연결, 육상 연결, 항공 연결. It details infrastructure projects like KTX, roads, and air services connecting the Sun Belt regions.

프라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다른 시·도의 반발이다. 정부는 인프라 조성의 경우 2019년까지 계획된 국가기간교통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벨트 인프라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경쟁력있는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남해안 프로젝트를 지방발전 전략의 대표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관광 클러스터 구축 어떻게=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3개 시·도가 지난 4월말 제출한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99개 사업에 대한 평가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달 중에 이들 사업이 섬·이순신·습지·크루즈·공통 등 5대 테마와의 부합성, 사업추진도, 개발 잠재력 등 기초 조사를 한 뒤 6월부터는 현장조사를 벌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8월까지 사업과 제를 선정할 뒤 2010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여수 세계박람회에 앞서 2011년까지 여수항내 크루즈 여객 터미널을 완공하고, 남해안의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린항만의 개발·이용을 지원하는 가장 마린법도 올해 제정한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15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효석 원내대표 등이 쇠고기 재협상 촉구 등 대정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FTA 저지는 국익 방해 행위”

野 “재협상 완료까지 고시 연기”

여야 FTA 공방 계속

여야는 15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 연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협상 문제를 놓고 공방을 계속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은 쇠고기 재협상과 연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저지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고시 연기는 극도로 약화된 민심을 일 시적으로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고시를 유예하고 검역 주권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 오는 1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를 열어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을 시도키로 하는 등 압박을 이어 갔다.

◇여당=한나라당은 장관 고시가 연기에 따라, 17 대 국회 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집권했던 민주당이 자기들이 마무리해야 하는 쇠고기 협상과 FTA를 질질 끌고 미뤘다야 야당이 되자마자 결사 저지에 나서고 있다”며 “민주당은 무책임한 선행정책을 그만두고 국익을 위한 정당으로 돌아오라. 쇠고기 문제에 더 집착하지 말고 FTA 동의안 협상에 응해달라”고 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우리 경제를 이모양 이꼴로 만든 것은 지난 10년간 좌파 정권이 엉터리 국정을 해서 그렇다”면서 “어지간하면 반성을 해서 일자리 만들기에 협력해야 하는데, 중요한 수단인 FTA를 방해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역사적 죄에 얹어 더 큰 죄를 짓게 된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수석 부대표도 “민주당이 쇠고기와 FTA를 연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불합리하다”면서 “쇠고기는 검역, FTA는 관세에 관계가 되는 것인데 논리적으로 불합리하고, 당파적 이익만 추구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야당=통합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한미FTA 비준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재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민주당은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정부는 국민 여론에 따라 재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고시를 연기하면 깊이 열린다.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가 재협상을 요청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쇠고기 장관 고시 연기에 대해 “야당과 국민의 노력이 모여 이 절반의 승리를 가져왔다”면서 “청문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고시를 연기시키고 재협상을 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전남 장관 고시 효력 정치 가치분산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날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고, 17 대 국회 임기 내에 통상절차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이날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재협상을 우선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美 “고시 연기 실망스럽지만 이해”

美 현지 쇠고기 점검단 본격 활동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5일 한국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연기와 관련해 “한국이 지난달 18일 맺은 협정을 일시 연기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그레첸 헤이델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최근 한국 정부에 접수된 300여건의 이의신청 의견을 감안한 듯 “한국 정부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헤이델 대변인은 이어 “이 같은 의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의견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한다”고 말하고 “한국이

협정을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한국의 정치적 절차를 존중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더 이상 늦출 정당한 이유는 없다”면서 “협정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것은 양국의 경제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특별점검단은 14일(현지시간) 미국내 도축 및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과 검역상황 점검에 본격 착수했다.

특별점검단은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 25일 까지 한국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는 텍사스주 에머럴로 타이스 프레시미트 도축장 등 31개 도축 및 가공시설을 직접 방문해 작업장

의 위생과 검역상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별점검단은 4개조로 편성해 이들 도축 및 가공시설을 방문, 새로운 수입조건에 따라 ▲30개월 이상 소가 제대로 구별돼 도축되는지 ▲월령별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은 제대로 구분·제거되는지 ▲작업장의 시설과 종업원의 위생상태가 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특별점검단이 이번엔 점검할 31개 시설은 애리조나, 유타, 네브래스카, 콜로라도, 캔자스,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네소타, 아이다호, 워싱턴 등 10여개 주에 분산돼 있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친환경 전원 주택단지' (Eco-friendly 전원 housing complex) in Gwangju.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lush green landscape with a river and mountains. Text highlights '광주 출퇴근 가능!!' (Gwangju commute possible!!) and '총 25세대' (Total 25 households). It lists amenities like a swimming pool, gym, and clubhouse. Contact information for '시행: (주) 로베스테이트' and '시공: (주) 지앤백개발' is provided, along with phone numbers 062) 251-4000 and 091) 383-2346.